

소설로 읽는 인류의 발자취

《인간의 시작》 《네안데르탈》 《잉카골드》 등 인류기원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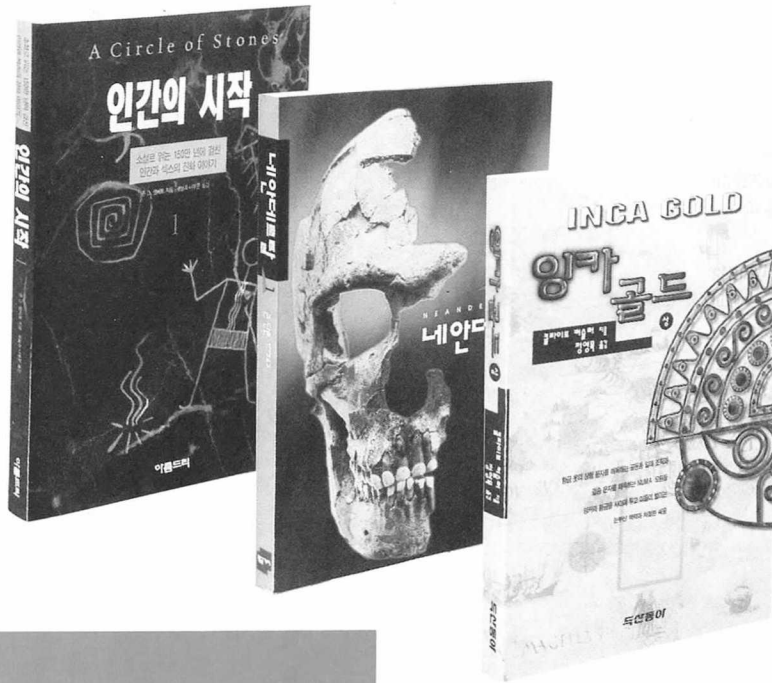
인류의 기원과 문명을 소재로 한 외국소설의 번역소개가 활발하다. 마빈 해리스의 문화인류학, 테스먼드 모리스의 동물행동학, 시오노 나나미의 흥미진진한 역사학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문서적의 강세는 최근 독서계의 뚜렷한 흐름을 형성한다. 여기에 《신의 지문》(까치)의 부상으로 고인류학에 일반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설에도 이런 주제를 다룬 작품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독자의 욕구를 한발 앞서 예측한 출판사의 예지가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12월 31일 자정 2초 전의 인류

《인간의 시작》(아름드리)은 인간과 성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로 150만년의 시간이 응축돼 있다. 150만년은 겨우 1백년인 인간의 수명에 비하면 장구한 세월이지만, 48억년이나 되는 지구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일본의 생물학자 기무라 무토의 비유에 따르면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면 한 달은 4억년 풀이다. 공룡시대는 12월11일부터 16일까지 해당되고, 인류가 나타난 것은 12월 31일 8시 경이다. 인류가 현대과학을 알고 누린 것은 12월 31일의 자정 직전의 2초간이다.”

3부로 이뤄진 이 소설은 지혜로운 어머니를 상징하는 여인 ‘제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인류의 진화과정과 인류문명의 발전과정을 탐색한다. 저자 존 D. 램버트는 여성인류학자로서 인류학계의 연구성과와 자신의 연구업적을 소설에 한껏 풀어놓고 있다. 특히, 모권제 사회에서 부권제 사회로의 이행을 묘사하는 부분은 파워페미니즘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과격’하다.

최초의 제나는 후기 호모 하빌리스 또는 초기 호모 에렉투스라 불리는 원인류. 약 100만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이며 뇌용량은 900cc이다(현대인의 뇌용량은 1400cc). 1부에는 대자연에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찾아다니는 제나와 어미 토프, 제나의 어린 남동생이 등장한다. 무리에 속하지 않은 수컷이 젖먹이를 죽이려 달려들고, 짝짓기를 통해서 수컷의 폭력성을 무마시키며 무리의 평화를 유지하는 암컷의 지혜로움이 그려진다.



고인류학을 다룬 책들에 호응이 높은 가운데 인류문명의 탐색을 소재로 한 외국소설이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인간 모두가 갖는 시원에 대한 욕구인 만큼 이같은 소설의 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제나는 뇌용량이 1100cc인 후기 호모 에렉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변화하는 시기의 부족에 속한다. 진화과정은 50만년 전부터 시작되고, 뇌용량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뇌조직도 새롭게 갖춰진다. 전두엽이 커진 덕분에 발달된 언어능력을 갖게 되지만 두개골이 커지면서 출산이 힘들어져 많은 여인들이 아기를 낳다가 죽는다. 아직 어머니 중심의 모계제 사회로 섹스의 주도권은 여성에게 있고,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섹스는 엄격하게 다스린다. 또한 여성이 남성과 골고루 성관계를 가져 남성의 폭력화를 미연에 방지한다.

세번째 제나는 5만년 전에서 3만 5천년 전까지 살았던 크로마뇽인. 이 호모 사피엔스는 현대인과 큰 차이가 없다. 남자와 여자의 짝짓기로 아기가 태어난다는 생명 탄

생의 비밀이 밝혀진다. 이에 여성의 지배에 불만을 가졌던 남성이 주축이 되어 아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다른 부족을 침략해 여성을 소유하면서 가부장제 사회로 넘어간다.

이 소설은 번역전문모임 ‘햇살과 나무꾼’이 우리말로 옮겼다. “두사람이 꼬박 넉달 동안 이 소설에만 매달렸다”고 강부홍 실장은 말한다. 인류학·생물학·지질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충하는 일에도 고충이 따랐지만, 자연 그대로이며 원초적인 성행위의 묘사를 옮기는 일이 더 어려웠다고 토로한다.

불확실한 미래와 ‘인류학 현상’

《인간의 시작》이 ‘인류학’에 중점을 둔 소설이라면 《네안데르탈》(황금가지)과 《잉카골드》(두산동아)는 ‘환상적인 모험소설’이라는 점에 비중이 더 높다. 이들 소설은 네안데르탈인과 잉카유적 같은 고고학적 소재를 환상적인 추리기법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다.

“논리적인 전개로 하는 《인간의 시작》과는 형식 면에서 다르다. 네안데르탈인이 현세에도 살아있다는 가정 아래 인류문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송교섭 편집장은 《네안데르탈》을 자평한다. 인류학 신드롬에 힘입었음인지 초판 1만장에 이어 한달만

에 2쇄를 찍을 예정.

알타미아 동굴을 보고 구상에 들어가 13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완성된 존 단튼의 소설로 인류의 기원에서 ‘잃어버린 고리’로 불렸던 네안데르탈인의 존재와 삶을 현대인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세계의 지붕’ 타지크스탄의 파미르 산에서 사람들이 사라진다. 케릴라와 여학생에 이어 저명한 고생물 학자 켈리커트 박사가 자취를 감춘다. 매트와 수잔은 스승인 켈리커트 박사가 파헤치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파견된다.

이들은 파미르산을 오르던 중 네안데르탈인을 만난다. 네안데르탈인의 초능력을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CIA는 군대를 파견하고, 이교도 네안데르탈인의 습격을 받은 유인원들은 큰 피해를 입는다. 수잔은 산 정상에서 4만년 전,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환상 체험을 한다. 《잉카골드》는 500년을 넘나드는 소설. 1533년, 소함대를 이룬 뱀목선들이 내해에 있는 섬으로 접근한다. 이들은 마지막 잉카왕의 보물을 숨기고 뱀의 머리에 날개가 달린 재규어의 돌형상을 남긴다.

1578년, 영국 범선이 잉카의 보물을 실은 스페인 배를 나포한다. 여기에는 마지막 잉카왕의 보물이 숨겨진 장소가 기록된 비취상자도 들어 있다. 16세기에 일어난 두가지 사건이 이 소설의 전제. 1998년 10월 10일, 고고학탐사를 위해 ‘희생 웅덩이’에 들어간 고고학자와 사진사가 생명의 위협에 처한다. 두사람에 대한 구조를 기화로 국립해저 해양부 요원과 거대한 골동품 밀매조직 사이에 잉카의 보물을 놓고 처절한 싸움이 펼쳐진다.

인류의 기원을 알고 싶은 욕구는 인간 모두가 갖고 있다. 더구나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현대인에게 그런 욕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독서계에 일고 있는 ‘인류학 현상’도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를 더욱 정치하게 묘사한 소설, 한반도의 시원을 다룬 국내 소설가의 작품 생산도 기대해 본다.

—최성일 기자